

전남도, 노르웨이와 재생에너지 교류 협력 본격화

김 지사, 주한 노르웨이대사와 해상풍력 등 논의·지역발전 협의 비즈니스 사절단 동행...목포신항·해남화원산단 방문 협력 구상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남도와 노르웨이의 협력이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이 전남도와 노르웨이 정부·기업의 가교 역할에 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만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분야 협력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만남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이날 해상풍력 연구기업·에너지협회 관계자 등 비즈니스 사절단(18명)과 동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은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여수, 영광, 진도 등에서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신안 화산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3.6GW 부유식 해상풍력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제도 개선, 해남 화원산단 개발을 통한 전용항만·배후단

지 확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노르웨이 비즈니스 사절단의 이번 방문이 최고의 해상풍력 사업 여건을 갖춘 전남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노르웨이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인 전남과 해상풍력, 조선·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전남도와 노르웨이 정부·기업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김영록 지사와의 면담 이후 비즈니스 사절단과 함께 목포신항 및 해남 화원산단을 방문해 해상풍력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전남도와의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구상한다.

전남은 글로벌 터빈기업인 베스타스 등 세계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유럽 기업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번 노르웨이 비즈니스 사절단 방문은 세계 각국에서 전남을 해상풍력 핵심 허브로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전남도는 올 1월 8.2GW 선도사업(99MW)의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한화건설(400MW), 남동발전(300MW) 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 사업 해상풍력 집적화단지(4GW)도 연말까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분야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제공>

다큐 영화 '길위에 김대중' 내년 1월 개봉

2024년 탄생 100주년 기념 미공개 자료·주변인 증언 담

호남이 배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공헌했다. 제 15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재임시 IMF를 조기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등 업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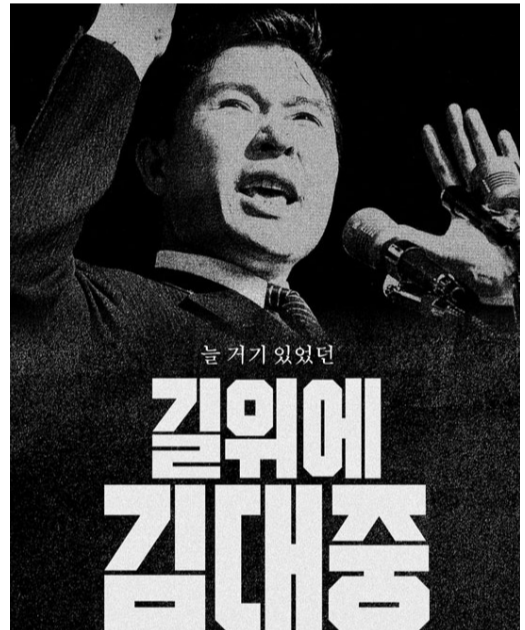
2024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영화가 내년 1월 개봉할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23일 영화제작사 명필름에 따르면 김 대통령의 삶의 역경 등을 다룬 '길위에 김대중'이 내년 1월 개봉한다. 이번 다큐영화는 미공개 자료를 포함한 아카이브 자료와 주변인 증언 등을 담아 제작된다.

김대중평화센터가 기획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경을 그린 다큐 '노무현입니다'를 제작한 최낙용 시네마6411 대표가 제작에 참여했다. 연출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삶을 그린 다큐 '노회찬6411'의 민환기 감독이 맡았다.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김대중은 1950년 '목포일보' 사장, 1960년 민의원 당선 후 1971년까지 6·7·8대 국회의원을 거쳐 대한민국 제 15대 대통령(1924~2009)을 역임했다.

1976~78년에는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



는 등 고초를 겪었으나, 이후 대통령 당선된 후로는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으며 같은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제작사 등은 다음 달 1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영화의 멀티플렉스 상영권 확보를 위한 모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연합뉴스

박광태 전 시장 아들 땅 특혜 의혹 정식 감사

감사원, 감사관 4명 파견 광주시·광산구 2개 기관 본감사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지난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3개월여 만으로, 감사원은 앞서 지난 8·10월 사전조사(예비조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 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11월 16일까지 광주시와 광산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조사관 4명을 파견하고,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본 감사를 나선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시도 같은 달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주시는 당시 2018년 3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 사업체의 소촌농공단지(산단) 산업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2개월여간 광산구와 광주시를 대상으로 공식(본)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조사에 나섰으며, 광주시 등이 공익감사 청구 의견으로 제시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일부 확인하고 공식 감사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본 감사에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

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박 전 시장 아들의 사업체가 산단 내 공장 용지 부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추정 땅값만 22억 원이 상승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개입 등 '도호세력'의 특혜나 비호 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도호 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 상반기 고위직 인사에서 '악랄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태다.

감사원은 또 그동안 광주일보에서 수차례 제기해온 박 전 시장의 아들이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워법 여부를 들여다 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빅데이터 분석 저상버스 투입 노선 선정

광주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저상버스 투입 노선을 선정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올해부터 차량 운행 기간(기본 9년에 최장 2년 연장)이 다한 시내버스 등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새로 투입하도록 했다.

시는 저상버스 투입 노선을 선정하려고 지난 4월 한 달간 시내버스 장애인 탑승객 현황을 파악했다. 노선별로 장애인 탑승 인원,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에 자주 이용하는 노선과 버스 번호를 추출했다.

한 노선에서는 장애인 탑승객 165명 가운데 남광주역 인근 25명, 화정중 인근 22명, 풍암동 인

근 14명 등으로 분산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계 28명, 오후 1시계 15명, 오후 2시계 21명, 오후 4시계 19명이 이용했다. 광주시는 주요 노선 장애인 이용객을 분석해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할 순위, 노선, 버스번호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배달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화된 데이터의 전체 흐름을 나열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과 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원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주소: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